

“송도 도시경관 고도화를... 공공 환원 확대 필요”

인천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가 최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RC5BL 도시경관 고도화 및 국제도시 위상 제고 촉구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송도 국제도시의 공공 환원 확대와 도시경관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이 대표로 추진한 이번 결의대회는, 제9대 인천시의회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송도의 미래 경쟁력과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송도 개발이역이 도시 경쟁력 강화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 점을 지적하며, RC5BL이 인천도시중시의 사실상 마지막 공공분양 사업인 만큼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송도의 미래 도시경관과 국제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송도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 국제도시이며, 그 과정에서 창출된 가치 역시 송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활용해야 한다”며



RC5BL 도시경관 고도화 및 국제도시 위상 제고 촉구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연 인천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C5BL은 단순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송도의 도시 품격을 결정할 마지막 상징적 사업인 만큼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

은 도시경관과 자족기능 강화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9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송도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갈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선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의왕시의회, 임기 만료 폐원

투명한 의회 조성 총력

제9대 경기 의왕시의회가 지난 4년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달려온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의왕시의회는 최근 ‘제9대 의왕시의회 임기만료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폐원식은 2022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의왕 시민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의원 활동영상 시청, 갑각파 의정의 폐원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간소하면서도 열성하게 진행됐다.

제9대 의왕시의회는 4년의 임기 동안 정당을 초월해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쳐며 다방면에서 꾀적한 성과를 남겼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거, 복지, 환경 분야의 민생 조례를 대폭 발의·제정해 의정의 발전적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특히 임기 말까지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조례를 발의하는 등 투명한 의회 신뢰도 구축에 앞장섰다.

의왕=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의결로 면죄부 안돼... 엄격한 검증 시작

이영실 서울시의원 날선 지적

“시민 혈세 낭비 끝까지 감시”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동의안 통과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 시민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며 “오하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마스크 기탁 받아

복지기관·보훈단체 기증식 개최

경기 하남시의회가 지역내 민간 기업과 복지·보훈단체를 잇는 든든한 ‘기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유니언그룹(회장 진용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2만 장을 기탁받아, 이를 지역내 사회복지

기관 및 보훈단체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의 실질적 수요를 연결하고자 하는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연계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진용세 유니언그룹 회장, 이점복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점용 하남보훈회관 상이군경회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기탁된 마스크는 사회복지법인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하남보훈회관 상이군경회 경로당에 각각 1만 장씩 배부됐다. 해당 품종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유니언그룹 진용세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광연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니언그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전영민 기자 jyw@siminilbo.co.kr

가 안전인력의 규모와 필요성, 운항준수금 산정의 적정성, 향후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은 여전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사업의 성과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전남도의회, 제12대 의회 회기 마무리

4년간 2000여건 안건 처리·입법활동

1일 전남광주특별자치의회 출범

전남도의회가 최근 제399회 제3차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12대 회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자치의회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지난 4년간 2000여건의 조례안과 권의·결의안을 처리하며 지역 개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지역소멸 대응과 청년정책, 산업 경쟁력 강화, 교육혁신, 민생경제 회복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태균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은 제12대 전남도의회의 긴 여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뜻깊은 순간”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원 역할 제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이라는 약속을 실천하며 의정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

와 연구단체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TF 운영 등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왔으며, 제12대 후반기 의정 공약 11개 실천과제를 모두 완료해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정책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회 구현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특별자치의회 출범 과정에서 대응 TF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균형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전라남도의회가 쌓아온 의정 경험과 성과가 전남광주특별자치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통합의 새 시대가 전라도 광주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전남도의회의 이번 회기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자치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남광=황순수 기자 whng04@siminilbo.co.kr

강남구의회 제9대 의회 총 644건 안건 심사·의결

구경 경제·감시 역할 토크... 지역발전 대안 제시도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규)가 최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들을 처리하고 지난 4년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 구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 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임시회 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한 부동산 증개축을 통한 구경 조성 위한 조례(이동호 의원 등 6명) 등 12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1건의 위원회안 안건, 구경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중 ‘강남구 건설한 부동산 증개축을 위한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강남구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3회 등 31회 회의 351건 동안 본회의 67회, 상임위원회 246회, 특별위원회 6회를 개최해 총 6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7건의 국정질문, 13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경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부터는 새 강남구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제10대 강남구의회는 개원식을 기점으로 강남구의회 전반기기를 이끌어 나갈 의정단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